

KT&G 상상마당 대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철강·조선, 후관가격 줄다리기

1층 갤러리 조성·독서공간 개관

KT&G 상상마당 대치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KT&G는 서울 사옥에 위치한 '상상마당 대치'에 다목적 문화공간 '대치 갤러리'와 휴게형 독서공간 '상상마루'를 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상마당 대치'는 2006년 전문 공연장 '상상아트홀'로 출범해 2017년 '상상마당'의 일원으로 통합됐다. 이후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이 가능한 '대치아트홀'과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큐브'로 운영돼왔다. KT&G는 '상상마당 대치'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문화공간 조성에 나섰다.



KT&G 상상마당 대치 /KT&G

먼저 3층 대치아트홀 옆에 위치하던 아트큐브를 1층으로 옮겨 '대치 갤러리'로 재탄생시켰다.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1층 개방된 공간에 갤러리를 조성한 것이다. 전시공간의 기능을 강

화하고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며, 토크쇼와 강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0월 1일에는 3층 대치아트홀 옆에 휴게형 독서공간 '상상마루'를 개관해 대치아트홀 관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 경험과 독서를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 일정에 따라 관객과 맞춤형 도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비주류 예술작가들의 독립 출판물도 비치한다.

'대치 갤러리'의 개관을 기념해 내년 1월 3일까지 정유미 작가와 함께 'KT&G 대치 갤러리 오픈링 전시-Silent Blue'를 개최한다. 이어, 10월 1일에는 '상상마루' 개관을 맞아 '포노사피언스' 저자 최재봉 교수의 북 콘서트를 진행한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metroseoul.co.kr



기지 수첩

정연우 (산업부)

'년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다. 제로섬 게임의 반대말로 한쪽의 이익과 다른 쪽의 손실을 합했을 때 0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양쪽의 관계에 대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협력이라는 요소가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윈-윈 전략이다.

현재 후관가격 협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를 보면 양측이 경쟁을 통한 게임을 할 때 한 사람이 게임에 이겨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를 잃는 제로섬 게임이 떠오른다.

두 업계 모두 현재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후관가격 협상이 4분기 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조선사에 후관을 공급하는 철강업계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기준 톤(t)당 72.63달러였던 철광석 가격이 90달러 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

선사는 가격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업황이 좋지 않아서다. 양 업계는 모두 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7월부터 시작된 협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조선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철강사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올해 하반기 후관가격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업계가 서로 협력을 하는 방안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은 어떨까. 국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업계 중 한 곳이 손실을 보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크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우위를 선점해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하고 협력을 통하여 더 많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경쟁을 통하여 결국 상대를 이겨야 하는 제로섬 게임보다는 협력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만들어 가는 년 제로섬 게임을 해보자.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것을 만든다. /ywj964@metroseoul.co.kr

KT, 이강인 선수와 월드컵 승리 기원 이벤트

이강인 선수 스페인 경기 직관 기회도

KT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승리를 기원하는 이벤트를 연다.

KT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축구 국가대표팀과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대한민국을 외쳐라, 당신도 5G 국가대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

중 스리랑카 전(10월 10일, 경기도 화성)과 북한 전(10월 15일, 평양)이 열릴 예정이다. KT는 축구 국가대표팀과 이강인 선수를 공식 후원하고 있는 후원사로 대한민국의 승리의 염원을 담아 총 1만2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 일환으로 KT 5G 고객(신규가입, 기존)을 대상으로 스페인 현지 발렌시아CF 이강인 선수 경기 직관을 갈 수 있는 '5G 윈정대'를 뽑는다. 총 11명을 선발하는 5G 윈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이벤트에서 증정하는 친필 사인 유니폼을 들고 있다. /KT

정대는 스페인 왕복 항공권과 숙박, 경기 티켓, 이강인 선수의 팬미팅 기회가 주어진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10월 1일 (음 9월 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일의 마무리를 끝까지 완수. 48년생 불이 나도 가까운 곳의 물이 필요. 60년생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2년생 자기전척에 대해 보람을 갖자. 84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밤길을 가니 봐 주는 사람이 없다.
- 말** 42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 54년생 치과치료는 늦추지 말고 바로 받아라. 66년생 새로운 것이나 유행에도 관심을 가지자. 78년생 상사의 뜻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내지 마라. 90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의 거래가 성공.
- 소** 37년생 투자나 매매는 불리하니 다음 기회에. 49년생 북쪽으로 길을 잡으면 행운이 있다. 61년생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73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85년생 부모유산을 기대하고 백수건달로 놀지 말아야.
- 양** 43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잘 해결. 55년생 모든 일은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79년생 구설수를 주의하고 승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91년생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가 없다.
- 호랑이** 38년생 배품에 고집을 부리면 가족도 외면. 50년생 일이 너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걱정. 62년생 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시작. 74년생 더도 말고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86년생 계획 없이 급하게만 서둘러서 후회할 마금.
- 원숭이** 44년생 외출을 하면 행운이 따른다. 56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6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잘못하면 망신 수. 80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하라. 92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 토끼** 39년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51년생 당장은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해라. 63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75년생 재워 불화는 대화로 풀려라. 87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할 때.
- 닭** 45년생 막혔던 구멍이 뚫리는 날. 57년생 금전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있다. 69년생 자고 나도 피곤하니 좀 쉬어야 한다. 81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아 원하던 것을 이루어낸다. 93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을.
- 개** 46년생 필요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58년생 된다. 된다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70년생 잠재된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82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을 본다. 94년생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신중하게.
- 돼지** 47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유리한 쪽으로 행동. 59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라. 71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83년생 이론도장은 신중을 기해서. 95년생 가계부를 써보고 돈을 아껴라.



김상회의 4계 재물을 불리고 싶으면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으뜸을 차지할 것이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즉 돈이 풍족하다는 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100명에게 똑같은 액수를 주고 1년 후에 보면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 누구는 몇 배로 불리고 다른 누구는 절반도 남지 않는 아주 다른 모습일 것이다. 재물을 불리는 방법은 저마다 다른데 신기하게도 자기의 사주가 큰 역할을 한다. 사주가 편재격(偏財格)인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린다. 도전적이고 어느 정도 위험이 있어도 개의치 않는다. 정재격(正財格)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불린다. 재물이 생기면 쓰지 않고 모아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불려가는 방법을 택한다. 정재격은 원리원칙에 충실한 성격인데 재물에 관해서도 다르지 않다. 사주가 편재격이라면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크다. 사업을 벌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부딪치고 본다. 이런 사람은 화통한 성격이면서 재물을 불리는데도 한 방을 노린다. 파죽지세의 운세를 올라탄다면 순식간에 큰돈을 벌어들인다. 단점은 재물을 날리는 것도 순식간이라는 것이다. 정재격은 착실히 자기의 재물을 지킨다. 기회가 와도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재물을 불려간다. 답답하지만 큰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장점이다.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부자가 되는 일도 드물다. 재물을 불리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싶어 하지만 뜻밖에 자기에게 어떤 방법이 맞을지는 잘 알 수가 없다. 흥망성쇠가 모두에게 똑같은 형태로 벌어지지 않는다. 시작은 같아도 결과는 판이하다. 재물을 불려가고 싶으면 나에게 어떤 방법이 잘 맞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1	
8		3	4		7
	4		5	6	
1	2		8		5
	9	6		8	
5		9	7		6
	3		2	7	
1		8		9	6
	2				3

		8	7	3	
	1	6		2	7
7					
2	9		5		8
1					3
	7	1		6	
	6			5	
1		2	7		8
5	2	6	4	7	

스도쿠 정답

8	9	6	1	5	2	7	3	4
9	7	3	8	4	6	5	2	1
5	6	2	9	7	1	8	3	4
2	9	8	1	6	5	4	7	3
1	4	8	5	9	3	6	2	7
6	5	9	7	2	8	1	4	3
3	8	9	2	1	7	6	5	4
4	2	5	6	3	9	8	1	7
7	1	4	3	8	6	2	9	5
6	1	2	5	8	4	9	7	3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97호